"이 길, 다시 걷고 싶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습지로 자리매김한 순천만습지가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녹색옷으로 갈아입고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 습지 탐방객 설문

95% "만족"…불만 2% 뿐

20대가 64%·수도권 거주 51%

순천시가 순천만습지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자 대부분이 '다시 오고 싶다'고 응답했다.

특히 순천만습지 탐방 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5%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불만족은 2%에 그쳐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탐방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방문 동기, 친절도·서비스·편의성· 이용추천, 입장료 변화, 주차 예약제,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순천만습지를 탐방한 결과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만족'이 95%(매우 만족 38%, 만족 57%)로 매우 높았으며, '보통' 3%, '불만' 1.5%, '매우 불만' 0.5%순이었다.

'순천만습지 재방문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추천(재방문하겠다)'이 90%('매우 추천' 51%, '추천' 39%)를 차지했으며, '보통' 7%, '추천 안함' 1%, '매우 추천 안함' 1%, '미응답' 1% 순으로 응답하는 등 탐방객 대부분은 다시 한번 순천만습지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탐방객 유형'으로는 여성과 남성 비율이 비슷했고, 20대(64%)의 젊은 층과 친구(57%)·가족(21%) 단위 탐방객이 많았다. 탐방객 거주지는 수도권(51%)과 영남지역(31%)의 비율이 높았다.

탐방객 방문 동기는 '자연경관 감상' 62%, '휴식' 20% 순으로 주로 자연경관 감상을 통한 힐링을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친절도'와 '서비스' 및 '편의성' 부분에서도 만족도가 80%를 넘었다.

순천만습지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오감을 만족할 만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차예약제 개선 ▲지금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 및 관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습지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습지 내 시설, 체험프로그램 및 주차예약제 등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설문결과를 참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체납 징수전담팀 가동 '효과'

상반기 징수액 전년보다 10억원 늘어

순천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팀을 설치한 이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 1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과 내 징수전담팀을 설치·운영한 결과 6월말 기준 16억여 원의 이월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억여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한해 징수액인 13억여원을 이미 넘어섰다.

징수전담팀은 체납액 납부안내문 발송, 부동산·예금·환급금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사전신예고제를 통해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납부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중심의 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외수입 납부의식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반면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대 대학로 전경

순천대 대학로, 옛 영광 찾는다

'골목경제 활성화' 추진…내년까지 10억 투입 문화 공간 조성 등

한때 대학가 상권으로 크게 번창했던 순천대 앞 상가 골목이 행정자치부 2016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과거의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역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순천대 앞 상가 골목이 활성화 필요성, 주민참여도, 성과창출 효과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행정자치부 2016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최종 사업지로 선정됐다.

순천시는 내년까지 10억원(특별교부세 5억, 지방비 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학로 청춘길 조성, 주민주도의 골목상권협의체 운영, 문화 공간 형성 등 건강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도시 상권에 밀려 침체한 순천대 앞 상권이 이번 사업으로 다시 번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상인과 주민이 주도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새로운 대학로 문화를 만들어 순천대학로가 지역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kwangju.co.kr